

방화관리자의 꾸준한 노력, 경영진의 전폭적인 지지 한미은행 인천본부

이미숙 | 경영기획부 홍보팀

최고 경영진의 전폭적인 지지와 방화관리자의 투철한 사명감이 합쳐져
최고의 안전성, 편리성, 쾌적함을 추구하고 있는
한미은행 인천본부 시설관리팀은
화재 및 기타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건물 내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까지도 세심하게 관리하여 “고객만족 만점”을 추구하고 있다.

□ 회사 소개

1983년 설립된 한미은행은 미국식 선진금융기법을 도입·운영할 모델뱅크를 설립, 국내 금융기관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대우, 삼성 등 국내 대기업들이 미국의 아메리카은행과 합작, 자본금 300억원의 시중은행으로 출발하였다. 창립 이래 양보다 질을 우선하는 안전성장과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한 자산건전성을 추구하고 있는 한미은행은 미국식 은행경영의 강점과 철저한 상업주의에 입각하여 ‘열린 경영’과 ‘주주가치(Shareholder Value) 경영’을 추구하면서 조직정비와 인사제도 개혁 등 일련의 혁신조치를 단행해 나감으로써 은행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왔다.

’98년 6월말 경기은행을 인수하여 국내 경제비중이 높은 수도권의 영업기반이 강화된 만큼 이를 계기로 조직의 시너지효과를 발휘, 전국적인 영업기반 확대와 함께 ‘수도권 최고의 은행’이 되는 획기적인 기회로 삼아 대형 우량은행으로의 성장을

바라보고 있다. 또한 급변하는 금융환경 및 시장상황에 맞추어 수익성 높고 튼튼한 우량은행으로 살아남기 위한 대응전략으로 틈새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금융기법의 도입으로 영업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미은행은 동우공영(주)에 위탁하여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동우공영(주)는 건물관리에 있어서 최고를 추구하는 건물종합관리회사로 외국 선진업체와의 상호교류를 통해 선진관리기법을 축적하여 2001년 매출 1,000억원을 목표로 빌딩설비, 경비, 환경사업, 미화 등 일류 건물종합관리회사로의 입지를 굳건히 다지고자 노력하고 있다.

□ 건물 현황

지하 3층, 지상 20층, 연면적 47,434.16㎡의 한미은행 인천본부는 정립건축이 설계하고 한일개발이 시공하여 1991년 9월21일에 준공된 건물로 인

천 앞바다로 향하는 남동구 구월동의 완만한 경사지에 자리잡고 있다. 지하층은 주차장과 방재실, 기계실, 전기실 등의 지원시설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그 밖의 층은 한미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근로복지공단 등 20개 이상의 회사가 입주한 업무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3층은 한미은행 전산실이 위치하고 있어 화재예방활동은 물론 보안활동에도 각별한 관리를 하고 있다.

□ 방재시설

한미은행 인천본부 방재시설의 가장 큰 장점은 모든 시스템이 중앙감시실에서 자동제어할 수 있어 감시와 점검 및 유지관리에 성력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미은행 인천본부 건물은 도로와 나대지에 접하여 외부 연소위험이 낮을 뿐만 아니라 소화활동 상에도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주용도가 사무용도로서 화재하중이 낮고 각 방재관련 시설의 관리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어 화재위험도 평가지수는 최고수준인 1등급으로 평가되었다. 건물의 주요 구조부는 철골철근콘크리트 내화구조이며, 인명안전 피난대책으로서 주계단 및 비상계단을 비상용 승강기 및 제연설비를 설치한 특별피난계단으로 분산배치하여 지상피난층과 옥상 헬리포드까지 도달하도록 계획되었다.

화재 시 전원차단에 대비하여 총 1,500kw의 비

상발전기를 설치, 방재시설의 운용과 피난용 조명 시설의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피난구유도등과 통로유도등 및 비상조명장치는 방화관리 담당자들의 일상점검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주 소화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이며 저층부(지하 3층~지상 8층)와 고층부(지상 9층~옥탑 3층)의 2개 Zone으로 나누어 가압송수하며 각층에서 적정압력을 유지하고 있다. 전산실, 금고 및 변전실 등 화재의 신속한 진압과 복구가 필요한 장소는 전역방출방식의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를 설치하여 자체소화설비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 방화관리 조직 및 활동

한미은행 인천본부의 방화대책 위원회는 부행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무 점검정비반 편성은 시설관리팀에서 담당업무를 중심으로 전기설비반 등 10개반으로 편성하고, 각 반마다 3명 내외의 반원을 구성하고 있다. 방화관리의 총괄책임자인 관리소장은 소방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입주사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소화, 통보, 피난, 구호 및 피난유도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화재예방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년간, 주간, 일일별로 작성하는 방재점검 계획표

와 월동·월하준비계획서, 소방교육 및 훈련 계획서에 따라 계획을 실행하는 시설관리팀은 꼼꼼히 준비한 계획서 만큼이나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한다. 각 층별 입주사들의 변동현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소방훈련 시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자위소방대는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 교육, 훈련을 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한미은행 인천본부는 큰 규모의 건물이기에 크고 작은 공사가 있기 마련이다. 시설관리팀은 공사 시 발생하는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해 입주사 자체 공사는 물론 모든 작업에 대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기존시설에 지장은 없는지 등을 기술적으로 관리, 통제하고 있다.

‘점검이나 관리 시 기계보다는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말은 한미은행 인천본부에선 이미 지난 간 말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들은 국내 최고라 자부할 수 있는 최신식 자동제어시스템을 설치하여 모든 설비를 관리한다.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 요즘, 저는 사람보다도 기계를 믿습니다”라는 방화관리자의 말은 처음엔 의구심을 자아냈으나 그의 설명을 듣고 돌아본 결과 충분히 이해되었다. 이 큰 건물 곳곳을 일일이 둘러보며 점검을 한다면 하루종일 해도 시간이 모자라고 일의 효율성도 떨어진다. 그러나 조금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기계와 컴퓨터는 빠른 시간에 많은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이다. 어느 건물들은 기계에 오류가 자주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곳은 방화관리자의 많은 시간 투자와 노력끝에 시스템 상의 오류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성과는 최고 경영진의 화재안전에 대한 경영마인드와 관심, 그리고 방화관리자에 대한 믿음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이룩된 결과이기도 하다.

□ 협회와의 관계

한미은행 인천본부는 1992년부터 10년째 매년 협회가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특수건물이며, 화재안전점검을 통하여 화재예방대책의 적정수립과 화재보험요율의 개선을 위한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미은행 인천본부는 건물설계 초기부터 방재계획이 반영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또한 방화관리자의 꾸준하고 적극적인 근무 자세에 대한 믿음으로 경영진의 전폭적인 지지가 더해져 모범적인 방화관리 업무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일을 할 때에는 먼저 생각한 다음 일을 시작합니다. 무작정 일하는 것보다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경영자들과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력과 투자는 유사 시 화재진압 및 인명 구조에 절대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이 건물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과 편안함을 전해 준다. ☺

